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총회 결의문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글로벌 리더를 꿈꾸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청소년인 우리는 아동권리협약(CRC)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 특히 아동의 존엄성 및 나아가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및 정의·평화의 기초가 되는 것을 고려하고, 나아가 아동이 한 개인으로서 삶을 영위하고 자신의 권리뿐만 아닌 타인의 권리까지 배려하고 지원하는 세계시민으로의 성장을 다짐하며 이 결의문을 선포합니다.

아동권리협약(CRC) 기반 대한민국 청소년 권리 제안 사항

- 하나.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 사회에서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 하나. 아동이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 하나. 안전·재난 관련 훈련이나 대책에 대한 교육을 아동들이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방식을 다양화시켜주세요.
- 하나.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과 대책마련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 하나. 청소년들을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와 유해요소로부터 보호해주세요.
- 하나. 정부의 '아이 돌봄 사업'에서 아동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 하나. 아동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성교육을 해주세요.
- 하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미혼모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주세요.
- 하나. 아동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재발방지시스템을 확충해주세요.
- 하나. 청소년들의 선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진로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 하나.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주세요.
- 하나. 잦은 교육과정 변화로 인한 혼란을 줄여주세요.
- 하나. 학교 예산 운영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 하나. 학생들의 혼잡함을 줄일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교과 교실제 운영방안을 마련해주세요.
- 하나. 교사에게 법적·도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주장할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 하나. 아동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 하나. 모든 청소년들이 교내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대한민국 청소년 실천 사항

- 다짐 하나. 우리는 모든 아동이 겪게 되는 모든 빈곤을 종식시키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다짐 하나. 우리는 모든 아동들이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다짐 하나. 우리는 모든 아동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까지의 기회를 영위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다짐 하나. 우리는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다짐 하나.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아동들이 깨끗한 물과 위생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다짐 하나. 우리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을 시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다짐 하나. 우리는 아동의 권리를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고, 지역주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나아가 아동권리에 관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사회에서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근거 CRC(아동권리협약) 생존권

이슈 학교폭력 피해자가 사고발생 이후에 학교로 다시 돌아와도 제3자들로부터 언급이 되거나 조롱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처벌 이후에도 다시 동일한 학교에 배정되는 경우도 있고, 설령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더라도 심리적인 압박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런 것도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안 사항

- 2차 가해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2차 가해자 역시 1차 가해자처럼 처벌해주세요.
-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학교에 직접 개설해주세요.
- 아동들의 상담센터 방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세요.
- 익명의 편지상담과 같은 아이들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창구 혹은 단체를 개설해주세요.
- 폭력 사건 조치 이후 가해자가 또 다시 학교폭력을 할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2

아동이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근거 CRC(아동권리협약) 생존권

이슈

요즘 가정에서 사랑을 가장하여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나친 통제와 간섭으로 인해 아이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아동학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화 없는 일방적인 통제는 신체적·심리적인 압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사항

-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 부모님들이 자녀의 입장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노출도가 높은 TV 및 인터넷 광고를 통해 공익광고를 노출함으로써 지나친 간섭만이 사랑이 아님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열린 강연’ 개최: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강연을 통해 부모님께 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솔직한 독백을 전달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아동청원 사이트 개설: 아동만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를 통해 어른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회 혹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안전·재난 관련 훈련이나 대책에 대한 교육을 아동들이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방식을 다양화시켜주세요.

근거 CRC(아동권리협약) 생존권

이슈 현재 안전·재난 관련 훈련이나 교육이 각 도처의 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이론교육 성격이 짙고, 아동들의 흥미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나 지진 관련 교육 시 매뉴얼에 따라 아이들을 대피시키는 훈련이 아닌 교실에 앉아 이론 교육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실질적인 교육내용이 아동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안 사항

- 안전재난교육을 정규 교과목 지정을 통해 의무화시켜주세요.
- 교육방식을 단순히 동영상 시청이 아닌 소품을 이용한 현장분위기 조성, VR이용 등으로 다양화해주세요.
- 초등학생 이전의 조기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대처방안을 교육해주세요.
- 재난 체험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개인과 단체의 시설 방문을 용이하게 해주세요.

4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과 대책마련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근거 CRC(아동권리협약) 생존권

이슈

최근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서 국민청원 등 사람들의 불만과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인만의 문제가 아닌 한창 성장 중에 있는 아동들의 호흡기에도 치명적이며, 아동들은 특히 등하교와 체육활동으로 인해 수시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해 오염된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장비구축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없습니다.

제안
사항

- 미세먼지로 인한 휴교령과 체육활동 제한에 대한 매뉴얼을 보충 및 강화해 주세요.
- 1교실 1공기청정기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 미세먼지 휴교령으로 인해 아동을 돌봐줄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해당보호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직장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5

청소년들을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와 유해요소로부터 보호해주세요.

근거 CRC(아동권리협약) 보호권

이슈

청소년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해주는 청소년 보호 구역은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실제 통학 거리는 200m가 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청소년 보호 구역은 거리상 한계가 있으며 때문에 거주지와 학교 사이에 위치한 유흥업소, 성매매업소, 사행성 도박장, 성인PC방 등의 유해업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광주 첨단지역 청소년들은 모텔과 유흥업소를 지나 등하교를 함)

또한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2018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435건에 달하고, 사망 사고는 3건 이었고 사망자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스쿨존 표시만 있고 안전시설이 미비한 곳이 약 1만 1천여 개나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단속 카메라, 신호등, 안전표지판, 횡단보도 등이 없어 아동과 운전자 모두 위험합니다.

제안 사항

- 청소년 보호 구역의 범위를 주거지 근처까지 확대해 청소년이 학교뿐만 아니라 거주지 근처에서도 유해업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지도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표시하고, 등하교길과 청소년 보호 구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은 등하교 시간에 경찰이 순찰하여 청소년이 유해업소로부터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모든 스쿨존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스쿨존 위반 항목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여 운전자가 과속을 경계할 수 있도록 하며, 스쿨존 내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아동과 운전자 모두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운전면허시험 시 스쿨존과 관련한 문항을 필수로 출제하거나 그 비중을 높임으로써 스쿨존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을 키워 스쿨존에서 자발적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6

정부의 ‘아이 돌봄 사업’에서 아동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근거 CRC(아동권리협약) 보호권

이슈

현 ‘아이 돌봄 지원법’은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금액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이 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천구 아이 돌보미 사건’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납작한 물건으로 아이를 때리고, 음식물을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먹이는 등의 모습이 가정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아이 돌보미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커졌고 현재, 정부에 빠른 해결을 바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안 사항

- 돌보미 선생님의 인성 및 적성 검사 강화: 채용 시, 심층 면접 단계를 세분화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조 교육교사로 정해진 기간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해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채용 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1개월에 한 번 정기 교육을 통해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육의 질이 개선되고, 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영유아 학대 처벌을 강화: 강한 처벌과 법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아동의 학대는 무거운 범죄라는 시민 인식 개선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 CCTV 무상 설치를 지원: 정부적 차원에서 ‘아동 돌봄 사업’을 이용하는 가정에 한해서 CCTV 무상 설치 등을 지원하여 부모가 실시간으로 아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7

아동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성교육을 해주세요.

근거 CRC(아동권리협약) 보호권

이슈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할 때, 대부분 동영상 강의를 틀어주거나 전교생을 대강당에 모아놓고 실시하는 등 보여주기 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교육 강사들이 성행위와 피임 방법을 설명할 때 구체적인 언급을 생략할 뿐더러 직접적인 용어 사용을 기피하여 정확한 성 지식 전달이 어려우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사과의 성장 및 2차 성징과 관계없이 같은 내용의 성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호한 성교육으로 인해 아동이 성추행을 당했을 때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부끄럽다’, ‘아하다’ 등 성에 대해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되어 신고를 꺼려하게 됩니다.

제안 사항

-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교육 진행: 40명 이상의 학생에게 한 번에 실시하는 강의 및 동영상 강의로 성교육을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고, 한 반에 한 명 이상의 성교육 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며, 또한 성행위와 피임 및 성병 교육에 있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교재를 제작하고, 피임 도구 사용 실습을 의무화해주세요.
- 연령별 성교육 진행: 학년별로 다른 내용의 성교육을 시행하여, 아동들이 성 지식을 적절히 습득하도록 하며, 아동들의 사고 발달, 2차 성징 등을 고려하여 학년별로 심화된 내용의 성교육을 해주세요.
- 아동들이 성추행 등의 성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바로 성추행임을 인지하고 부모님, 선생님 혹은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해주세요. 또한 성추행을 당한 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8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있는 청소년 미혼모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주세요.

근거 CRC(아동권리협약) 보호권

이슈

2017년 통계청의 인구 총 조사에 따르면 만 20세 미만의 미혼모는 전국에 377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이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만18세 이하인 어린 엄마들이 국민행복카드(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수단)발급 등 정부지원을 받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으며, 의료비지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직계 가족이 위임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지만 미혼모 가족의 경우 도와주는 가족이 없을 때에는 출산 후 산후 조리도 하지 못한 채 미혼모가 스스로 찾아다녀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위해 일반 학교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도 다름을 이해하기 어려운 또래 친구의 인식으로 학교를 계속 다니기 어렵고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안 사항

- 법적인 미혼모 지원 제도의 간편화: 예를 들어, 직계 가족 대신에 친구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처럼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 증명 수단 요구를 간편화하고 승인 기간 역시 단축해주세요. 이를 통해, 당장 산후조리가 필요한 청소년 미혼모들을 도울 수 있고 미혼모의 자녀들에게도 경제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 미혼모 전용 교육 학교 및 제도 마련: 청소년 미혼모가 정부로부터 경제적 보호만 받는 사회적 약자의 상황을 유지하게 하기 보단 광역, 기초자치 단체별로 미혼모 전용 교육 학교를 세우거나 인터넷 강의 등의 교육지원을 해주세요.
- 인식 개선 교육 진행: 일반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에게 청소년 미혼모가 생길 가능성과 그들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며, 최종적으로 일반 초·중·고등학교에 미혼모가 다녀도 차별을 받지 않고 다양한 또래 친구를 사귄 수 있도록 해주세요.

9

아동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재발방지시스템을 확충해주세요.

근거 CRC(아동권리협약) 보호권

이슈

최근 채팅 앱에서 만난 10세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이라는 처벌과 같이 아동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많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성관계이며 그 아동이 만13세 이상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13세 이상의 청소년이라고 해서 성관계에 대한 정확한 학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폭행과 협박을 당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같은 상황으로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중앙일보의 서울/경기 지역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215명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39.1%에 달하는 84명이 출소한 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던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아동시설 옆 거주 법적 제한 근거도 부족합니다.

제안 사항

- 아동 성범죄에 대한 원심을 깨는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관행을 부수고 강력히 처벌하여, 아동성범죄자들이 성범죄를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을 상향하며, 법의 사각지대로 성범죄자들이 감형을 받는 수단을 방지해주세요.
- 우선적으로 성범죄 가해자들이 아동시설 근처에 거주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고, 더 나아가 피해아동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다시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 전문적인 아동 성범죄 전문 심리 상담사를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0

아동의 선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진로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근거 CRC(아동권리협약) 발달권

이슈

현 진로 교육이 주로 대학 입시 위주인데다가,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 영상 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진로 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 교육의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며, 전문적인 진로 선생님이 안 계시고, 직업 체험의 기회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매우 부족합니다.

제안 사항

-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진로 교사’를 학교마다 배치하여 모든 아이들이 교사와의 진로 상담을 통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고민할 기회를 확대해 주세요.
- 다양한 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방과 후 수업’을 개설하여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해주세요.
- ‘직업 체험의 날’을 국가적으로 제정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더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세요.

11

청소년들의 적성과 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주세요.

근거 CRC(아동권리협약) 발달권

이슈 국영수 위주의 입시 교육이 진로와 실질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상, 실생활에 밀접한 교육(경제 교육, 요리·공예·기계 등의 전문 기술교육 등)을 받을 기회가 적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경우, 강의별 인원수 제한으로 인해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안 사항

- 기초소양 교양 과목으로서 진로 교육을 설정해 학생들이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교별 연계를 통해 듣고 싶은 과목을 제한 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교과 과목 외에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그 중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를 선택해 자신에게 맞는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적성 및 수학능력에 따른 차별적인 학습을 통해 맞춤형으로 효율적인 교육을 이뤄 진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2

맞은 교육과정 변화로 인한 혼란을 줄여주세요.

근거 CRC(아동권리협약) 발달권

이슈

맞은 교육 정책 변화로 인해 교육자(선생님)들이 학습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여 교육적 미흡이 발생하며, 변화된 교육과정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도 혼란을 경험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 과정에 학생과 부모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안 사항

- 교육 정책 공청회 마련: 교육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공청회를 통해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변경할 수 있는 과목 수나 단원 수 제한: 교육 정책의 변화 자체가 불가피하다면 변경되는 과목이나 단원의 수에 제한을 두어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줄여주세요.
- 교육 정책의 방향성이 일관되도록 제도 개편: 정권이나 교육부 장관이 변화되더라도 교육 제도가 특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변화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전달력 있는 방식 마련: 교육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공청회를 통해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학부모를 위해 교육청에서 교육 정책 설명회를 단발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진행해주세요. 또한 학생의 경우 교육 정책에 대해 설명이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유튜브와 같이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정책 변화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13

학교 예산 운영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거 CRC(아동권리협약) 참여권

이슈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 자치활동 등의 학생 주체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학생들의 요구 보다는 학교에서의 일방적인 차별적 집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예산 증가를 요구해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자신의 참여할 권리를 제한 받는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안 사항

-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그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공개해 주세요.
- 학생들의 결정에 따라 예산을 분배하고, 매년 예산을 잘 사용하였는지 함께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14

학생들의 혼잡함을 줄일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교과 교실제 운영방안을 마련해주세요.

근거 CRC(아동권리협약) 참여권

이슈

현재 과목 대부분을 이동수업으로 진행하는 선진형 교과 교실제를 시행하면서 학생들의 쉬는 시간이 단축되었고 쉬는 시간마다 다른 교실로의 이동으로 인하여 복도 및 교실이 혼잡해집니다. 또한, 다른 학년과 다른 반 교실을 사용함으로써 도난 사건의 빈도가 증가하였고, 우리 반 교실이 아니라는 생각에 무분별하게 교실을 사용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제안 사항

- 선진형 교과 교실제를 2개 과목 등 일부 과목에 대해서만 이동수업을 진행하는 교과 교실제 방식인 과목 중점형 교과 교실제를 함께 고려해주세요.
- 선진형 교과 교실제의 목적을 학생들이 더욱 공감하고 느낄 수 있게 각 반과 과목별 특색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15

**교사에게 법적·도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주장할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근거 CRC(아동권리협약) 참여권

이슈 최근 성추행 혐의가 있어 해고당한 교사를 이사장의 조카라는 이유로 복직시키고, 학생들이 이에 대해 반발하여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리자 강제로 삭제하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존경받고 의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교사가 이러한 사건들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은 안타깝지만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 교사의 그릇된 행위를 학생들도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표현의 권리 역시 침해되는 것입니다.

제안 사항

- 교사에게 법적·도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학생들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세요.
- 학생들의 자유로운 정보 공유와 의견 표출을 위한 자유게시판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또한 학생들이 의견과 여론을 형성할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16

**아동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근거 CRC(아동권리협약) 참여권

이슈 이번 ‘대한민국 청소년 총회’나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등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이 있지만, 소수의 아이들만이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대부분 실제 법안통과와 정책 시행의 단계로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동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의 참정권 확대가 필요합니다.

제안 사항

-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춤으로써 아이들의 의견이 정책 시행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 더 많고 다양한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국회)를 확대해 주세요. 또한 어릴 때부터 학교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의무화하는 독일과 같이, 공교육 등을 통해 참정권 행사에 필요한 지적, 윤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주세요.

17

모든 청소년들이 교내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근거 CRC(아동권리협약) 참여권

이슈

교내에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특별반을 조성하고 상을 몰아주거나 생활기록부 특혜를 제공하는 등 많은 차별의 사례처럼 학생들이 동등한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 등에 따른 교사들의 학생 차별로 인하여 교내대회에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참여를 하지 못하거나, 평가에 있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안 사항

- 교내 프로그램 및 대회 등의 행사에 ‘블라인드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여 차별 없는 평가를 해주세요.
- 특별반을 폐지시키거나 최소화하여 모든 학생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 학생들이 느끼고 받은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18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아동이 겪게 되는
모든 빈곤을 종식시키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근거 SDGs_목표1

이슈 2000년 이래 세계 빈곤율은 절반으로 낮아졌지만, 개발도상국의 10명 중 1명은 여전히 하루에 1.9달러의 국제 빈곤선(최저 생활비) 이하 생활비로 살고 있으며, 일일 금액보다 더 적게 버는 사람은 수백만 명 이상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111만 가구의 사람들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에 대한 보호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천
사항

- 국제 및 국내 빈곤을 근절하기 위해 교내·외 빈곤 퇴치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 하루 1.9달러로 생활하는 것을 체험해보고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 빈곤체험 및 세계시민교육을 학교에 요청하며, 빈곤 문제에 대한 인식과 꾸준한 관심을 위해 교내 국제사회문제 실천 동아리 또는 스터디 모임을 구성하겠습니다.
- 국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9

우리는 빈곤층과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며 기아를 종식하는데 함께 힘쓰겠습니다.

근거 SDGs_목표2

이슈

토양, 담수, 바다, 산림의 훼손으로 생물다양성은 급격히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 변화는 우리가 의존하는 자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재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농민들은 더 이상 그들의 땅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심각한 영양실조로 수백만 명의 아이들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수명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9명 중 1명 (8억 1500만명)은 영양부족 상태이며, 영양결핍에 시달리는 인구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고, 12.9%의 사람들이 영양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 기준 취약계층 10명 중 3명은 영양섭취가 부족한 상황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천 사항

- 세계의 기아종식을 위해 우리의 식습관을 돌아보고 일정 기간 동안 ‘교내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 모든 아동들이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보장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영양 교육과 무상 먹거리 지원될 수 있게 해주세요.

20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아동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까지의 기회를
영위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근거 SDGs_목표3·4

이슈

전 세계 2억 6500만 명 이상의 아동이 학교를 중퇴했고 그들 중 22%는 초등 학생밖에 안 되는 나이이며, 많은 아동들이 학교에 다녀도 읽기와 수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아동의 초등교육 입학률은 91%에 달하지만 5,700만 명의 아동은 여전히 미취학 아동이며, 미취학 아동 중 약 50%가 분쟁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일반 가정 초등학생 아동의 학업중단은 해마다 줄고 있으나,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업중단 자려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학업 중단율은 일반 가정 초등학생과 비교해 4.5배나 높습니다.

실천 사항

- 지속적인 교육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아동을 위해 여러 NGO에서 진행하는 교육보호 캠페인에 참여하겠습니다.
-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학업 중단율을 줄이기 위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

**우리는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근거 SDGs_목표5

이슈

전 세계의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가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물리적 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49개국은 가정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아동결혼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해로운 관습인 여성성기 절제술(여성 할례)은 30% 감소하는 등 진전은 있었으나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CEDAW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에 대한 안이한 대응과 낙후된 여성정책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천 사항

- 여성 권리 증진과 아동 보호에 동참하기 위해 ‘엄마의 탄생’과 같은 모자보건 캠페인에 참여하겠습니다.
- 청소년 시기에 형식적인 평등교육과 성교육이 아닌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해주세요.

22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아동들이 깨끗한 물과 위생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근거 SDGs_목표6

이슈

지구에는 충분한 양의 신선한 물이 있지만 경제난이나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때문에, 아동들을 포함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물 부족이나 위생문제로 인한 질병으로 매년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명 중 3명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 공급을 이용하지 못하고, 10명 중 6명은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지수가 높은 국가이며, 국민 1인당 물 사용량은 세계 세 번째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오는 2025년 '물 기근 국가'를 거쳐 2050년에는 평가 대상 24개국 중 물 부족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천 사항

- 개발도상국의 아동에게 안전한 물 공급과 식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내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여 우물, 화장실 등 식수위생 개선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데 함께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물 부족 현상을 체감하고 극복하기 위해 개인 물 사용량을 줄이는데 앞장서기 위해 샤워시간 줄이기, 양치컵 사용하기 등 물 절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물 문제로 고통 받는 전 세계 아동들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 NGO 등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캠페인에 참가하겠습니다.

23

우리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을 시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근거 SDGs_목표13

이슈

기후 변화는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삶에 영향을 미치며, 오늘날과 미래의 사람들, 공동체 및 국가에 큰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1990년 이후 50%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구 평균온도와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12년 이래로 지구온난화와 도시화 효과로 평균기온이 1.5°C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의 최저 기온이 크게 상승하였고 강수의 횟수보다는 집중 호우 발생의 증가로 강수량이 증가했습니다.

실천
사항

- 평상시 이동을 할 때에 가능한 걷거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해 탄소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실천하겠습니다.
-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24

우리는 아동의 권리를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고,
지역주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나아가 아동권리에 관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근거 SDGs_목표16

이슈

전 세계적으로 명확한 데이터가 부족해 문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신체적 체벌 및 성폭력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아동 폭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5세 미만 아동 73%만 출생신고를 진행했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46%만이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 9,000건에서 2017년 3만 4,000
건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1000명당 학대 피해아동 수)은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실천
사항

- 세계 모든 아동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교내 캠페인을 진행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피해를 당한 아이들의 지원이 더욱 많아질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